

“아산재단과 복지현장 연결하는 가교가 저희 역할입니다”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황주연 국장은 아산재단의 사업지원단 현장전문가 제도를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더욱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1991년부터 20여 년간 복지업무에 종사해온 황주연(47)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2015년 5월 아산재단의 ‘사업지원단 현장전문가’로 선발되었다. 황 국장은 아산재단의 2015년 사회복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복지기관 6곳의 컨설팅을 맡았다.

서울 4곳(이화여대종합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한국여성의전화·서울시아동복지협회), 경기도에 2곳(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인 각 기관은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다.

6개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한 황 국장은 지난해 11월 각 기관을 방문해 프로그램 담당자들을 인터뷰했다(6개 기관 중 1곳은 사업수행 전이어서 방문에서 제외). 기관 2곳 방문에는 아산재단 사회복지 자문위원으로서 종사자 역량강화 부문을 총괄하는 자문교수가 동행하기도 했다.

황 국장은 직접 운전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하루에 1개 기관을 찾았다. 현장 인터뷰에는 보통 3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이번에 아산재단에서 시행하는 현장전문가 제도는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원기관과 피지원기관이 지원(돈)을 주고받는 걸로 관계가 끝났는데, 아산재단은 AS(애프터서비스)까지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이 훨씬 충실하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복지업무 10년 이상인 현장전문가

아산재단은 2015년부터 ‘사업지원단’운영을 결정했다. 사업지원단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재단의 사회복지자문위원 5명과 현장전문가 5명, 재단 사무처와 재단 산하 지역병원의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매년 100개 안팎의 사회복지기관에 47억여 원을 지원하는 재단의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신설된 사업지원단의 역할이었다.

현장전문가는 복지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복지관의 부장급 이상에서 선발하며 현재 수도권에서 4명, 지방에서 1명이 활동 중이다. 김범섭 관장(서울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부장(서울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박지은 부장(서울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신현목 부장(대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황주연 국장 등 5명의 현장전문가에게는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의 자립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28개 기관을 도와주는 임무가 주어졌다. 현장전문가는 각자 5~6개 기관을 담당한다.

“피지원기관은 현장전문가로부터 평가받는 관계라기보다 조언을 듣는 사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각 기관의 사업을 일정부분 평가하지만, 조사나 점수 매기기보다는 복지현장에서 오래 경험을 쌓은 실무자로서 조력해주는 데 역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황 국장의 경우 아산재단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나중에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을 조언해 주었다고 한다. 처음 아산재단에 지원한 사업계획서와 진행 내용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을 아산재단에 전달해 사업 조정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복지현장의 목소리와 입장을 아산재단에 잘 전달하는 가교 역할이 현장전문가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일종의 디딤돌인 셈이죠.”

황 국장은 지난 3월 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종로의 한 커뮤니티 카페에서 6개 기관 실무자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중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기관별로 사업진행 정도와 예산 집행률 등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간의 사업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는 “종사자 역량강화라는 한 가지 목표를 가졌지만, 성격이



지난 3월 3일 열린 중간 점검회의의 모습.

서로 다른 기관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한다.

아산재단 지원으로 변화된 내용

“제 경우에는 현장경험을 오래 쌓았지만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기관의 직원들도 이중 기관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았다며 아산재단에 고마워했습니다. 아울러 아산재단의 지원을 통해 변화된 내용과 가능했던 부분을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틈틈이 황 국장은 “아산재단이 사회복지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없애 주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드러냈다.

“사업 제안서를 잘 쓰는 것은 일종의 기술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기획서를 잘 만들어서 계속 지원받는 기관이 많습니다. 서류작성의 기교는 떨어져도 열악한 환경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하는 기관을 아산재단이 밀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전문가들도 그런 기관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9년 광주에서 태어난 황주연 국장은 광주대 사회복지학과와 서울시립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광주광역시와 성남시,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등을 거쳐 2014년 6월부터 경기도 의정부에 자리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이다.

2008년 아산상 복지실천상 등을 받았으며, 1999년 결혼해 딸(고1)과 아들(초6)을 두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전문성 못지않게 윤리의식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다. 🍎